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자	2023년 7월 10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	환경기후 정책과	담당자	• 탄소중립전략팀장 손여순 ☎440-8591 • 담당자 이준희 ☎440-8594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기후위기 폭염 피해 취약계층 촘촘하게 챙긴다

- 취약가구 150세대, 취약계층 이용시설 3개소 예방키트 지원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취약가구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여름용 이불, 도라지 차, 부채 등 폭염 피해 예방키트*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* 예방키트 : (가구) 여름용 이불, 도라지차 부채, 생수 / (시설) 아이스크림, 부채, 생수, 오미자차, 분리수거함

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 150가구와 중구 연안동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3개소를 선정해 기업이 후원한 폭염 예방키트를 지원한다. 특히, 물품을 전달할 때는 시에서 양성한 온실가스 진단·컨설턴트가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해 폭염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.

앞서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, 지난해에는 취약가구 80가구 등에 쿨루프, 단열필름, 이중창 설치를 지원해 왔다.

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“최근 폭염 등 기상이변은 사회·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”며 “기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2045년 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노력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(지원물품 지원)



중구 취약계층 이용시설(경로당)



남동구 취약가구

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!

여름철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폭염 대응요령입니다.

폭염경보 / 35°C
일최고체감온도 35°C 이상인 상태가
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.

폭염주의보 / 33°C
일최고체감온도 33°C 이상인 상태가
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.

1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!
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
야외활동을 피하고, 힘들 땀
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세요.

2 시원하게 지내기!
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소재,
밝은 색의 옷을 입고 양산과 모자로
햇볕을 가려주세요.

3 물을 자주 마시기!
규칙적으로 물이나 스포츠음료를
마시고 외출할 땀
탈블러를 꼭 챙기세요.

4 식중독 예방하기!
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고
적당량만 조리해
음식을 쓰레기를 줄여요.

5 주변사람 건강 살피기!
어린이, 노약자, 야외근로자 등
이웃의 건강을 살피고
응급환자 발생 시 119로
신고해주세요.